

조지 페이튼 박사, 성경 번역, 세션 23, 수동적 구조

© 2025 George Payt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조지 페이튼 박사와 그의 성경 번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3, 수동적 구성입니다.

이 토론에서 우리는 또 다른 번역의 어려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몇 가지 의사소통의 어려움, 즉 수동적 구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는 많은 수동적 구조를 접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동적 구조란 무엇일까요? 수동적 구조는 문법적 구문이며, 형태이며, 동사의 형태인데, 문장의 주어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장의 주어가 행동을 받는 사람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개가 존을 물었습니다.

우리는 존이 개에게 물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도하는 것 중 일부는 이것이 실제로 수동적 구조이고 능동적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사는 주어가 무언가를 하는 능동적 동사이거나 동사가 행해지는 사람에게 주의를 끌고 그것을 말하는 다른 방식, 즉 행해지는 사람이 이 행동에서 수동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또는 그녀, 또는 그들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에게 행해질 뿐이다. 이 경우, 존은 개에게 물렸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분명히, 개가 존을 물었다. 그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문장이다. 존은 개에게 물렸다.

개가 실제 행위자이기 때문에 수동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위자와 환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행위자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고 환자는 또한 행해지는 사람입니다. 좋아요, 뼈가 합성어에서 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둘 다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중태라고 부릅니다.

가시성 상태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싶어한다면 볼 수 있지만,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것을 얻지만, 오늘은 중간 음성, 소위 중간 음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중간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능동태와 수동태 사이에 있어서 중간이라고 부르는 걸 거예요. 하지만 중간의태라는 용어를 들을 수 있을 텐데, 이게 한 예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존재의 상태에 있고 그 순간에 실제로 행해지는 행동이 아닙니다. 좋아요, 그의 뼈는 단지에 묻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수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뼈가 묻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중 일부에서는 요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존은 개에게 물렸습니다. 이 경우, 누가 뼈를 묻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뼈를 묻었습니다.

좋아, 또 하나 더 있어. 그 남자가 깊은 구멍을 파고 있어. 꽤 활동적인 것 같아.

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오렌지를 다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글썄요, 그건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었다는 단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원이고, 오렌지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말하더라도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완성된 측면이라고 부릅니다. 오렌지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렌지를 받았고, 그것을 먹었고, 이제 그들은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전히 능동적 구성입니다. 비록 그것이 완벽한 양상, 완료적 양상에 있지만요. 깃발은 군인의 리더, 선두 군인이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수동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선두 군인이고 환자가 깃발입니다.

진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둘 다야. 응, 좀 흐릿하네.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수동태 구조와 비슷할 수도 있고, 중간태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안다고 하면, 문법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분명히 능동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과 수동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어부들이 어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능동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종이는 작은 조각으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완성된 측면이 추가된 수동적인 종류입니다.

누군가가 종이를 찢었습니다. 종이는 찢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어가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수동태로 분류할 것입니다.

수동적 구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됩니다. 수동적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행동을 받는 사람에게 주의를 끌거나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구절을 받은 사람은 존이었고, 패키지를 받은 사람도 존이었습니다.

누가 존에게 패키지를 주었다고 말하기보다는 존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했듯이, 에이전트가 언급됩니다. 다른 때는, 어떤 이유로든 에이전트가 제외됩니다.

때때로, 에이전트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때때로, 에이전트는 의도적으로 에이전트로부터 주의를 끌고 그 정체성을 숨기고 싶어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예가 있습니다.

내 자전거가 도난당했어. 그 요원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를 쫓아갔을 거야. 하지만 모르겠어.

우리는 내 자전거가 도난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면, 누군가 내 자전거를 훔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때는, 내가 말했듯이, 신원을 숨기기 위해 에이전트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창문을 깨면, 누가 창문을 깼을까? 야구를 하는 모든 소년들은 누가 창문을 깼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친구를 곤경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말할까? 응, 공이 창문을 깨거나, 아니면 깨졌어. 누가 그랬을까? 응, 어떻게든, 누군가가 그랬어.

어떤 만화책을 기억해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Mr. Nobody가 집에서 항상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좋아요, 누가 훔쳤을까요? 아니면 누가 부숴버렸을까요, Mr. Nobody? 누가 그 접시를 소파에 놓아두었을까요? 맞아요, Mr. Nobody.

그래서 때때로 작가는 어떤 이유로든 의도적으로 그 정체성을 비밀로 유지합니다. 수동적 구조는 그리스어에서 매우 흔하며, 우리는 신약성서 전반에 걸쳐 수동적 구조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나타나는데, 추상 명사, 분사, 생성 구조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과제는 누가 행위자이고 누가 행동을 받는지 식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이것은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의사소통의 격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것을 독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명확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사의 능동태, 동사의 능동 형태를 사용하여 참가자들과 명확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좋아요. 발생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일부 언어에는 수동태 동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사의 수동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동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강의와 다른 모든 강의의 목적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만약 해야 한다면,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사용해 왔고 전 세계의 성경 번역 및 번역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범 사례입니다. 성경 번역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2010년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로 저는 세속 번역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스와힐리어로 뭔가를 보내면, 그들은 "이걸 영어로 번역해 주시겠어요?"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원칙을 사용해서 번역합니다.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 증명서 같은 것도 있는데, 정확히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입니다.

이건 여기, 저건 저기. 제가 번역해야 할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또한 구두 통역을 해야 했는데, 제가 스와힐리어 화자를 대신해서 거기에 있었고, 그 화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병원에 갔는데, 그 환자가 동아프리카 출신이었고,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만큼 영어를 잘 몰랐거든요. 그러면 환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중개자로 나섰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의사소통 원칙,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덜 직관적인 다른 형식을 사용하는 대신 직관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원칙이었죠.

이 모든 것은 내가 번역을 말하든, 내가 번역을 쓰든, 그것이 세속적이든, 성경이든 적용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동태가 없는 언어는 어떻게 합니까? 이 경우, 내가 작업한 언어인 오르마어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하나요? 글쎄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남자에게 Goyo danen 이라는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람들이 Goyo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때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NI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 접미사입니다.

좋아요? 두 번째. 고욤 구르바 데인 . 즉, 고요가 그 소년을 때린 사람이라는 뜻이야.

고요는 그 소년을 때렸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NI가 고요의 끝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 고요는 남자의 이름이다.

daneni 있습니다 . 첫 번째 문장의 동사 형태와 비슷하죠? NI가 Goyo에 있나요? 아니요. 따라서 Goyo가 여기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고요는 환자입니다. 주어는 누구입니까? 주어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고요를 이겼다고 말하는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명확하고, 언급되지 않고, 맥락 밖에서. 그래서, 누군가가 자전거를 훔쳤다고 말한다면 , 그들은 3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훔치고, 때리고, 다른 사람이 했다는 표시로, 우리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니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르마스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의사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수동태처럼 기능하지만 형태는 수동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수동태 형태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daneni는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에서 동일합니다. 즉, 그것은 능동태 동사 형태이지만, 구성은 수동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오르마에서 이것을 사용하여 우리가 접한 성경적 수동태 중 일부를 전달하기 위해 무언가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접하는 수동태의 몇 가지 예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14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며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유혹하는 동사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이 그를 유혹할 때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문에서 얻는 것 중 하나인 사탄의 유혹은 지속적인 일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탄이 그를 유혹할 때, 또는 사탄이 그를 유혹할 때 광야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과거의 특정 시점이 아니라 지속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스어는 -ing 형태 를 사용 하고 분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지하는 한, 정말 중요한 정보는 그것이 지속적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번뿐인 일이 아니었고, 이런 작은 일들이었는데, 세상에, 이걸 설교한 목사가 얼마나 많았을까? 아마 많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사탄이 예수를 내내 유혹했다고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구절에 대한 흐르는 서면 주석이 없기 때문에 성경 번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가복음 13 :9. 너희는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사실, 그 전에, 그들은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여러분이 여기에 이르기 전의 문자적인 문장이고, 너희는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 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어쩌면 그게 오르마 같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냥 그들이라고만 말하고, 우리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당신은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할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채찍질할 겁니다.

그리고 누가 당신을 채찍질할 것인가? 그들이요. 그리고 어떻게든 당국이나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서 당신을 채찍질할 겁니다. 좋아요.

그녀는 왜 낭비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그녀는 왜 이 향유를 낭비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성경의 문화와 존중을 매우 중시하는 비서구 문화권에서, 그리고 제가 이전 토론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이 마주하고 있을 때는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동태로 사용되는 이유일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왜 이 향유를 낭비했을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이 향유는 300 데나리온 이상, 즉 8개월치 봉급에 팔렸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데나리온에 대한 논의와 돈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두 가지 수동태가 팔렸을 수도 있고, 돈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꾸고 싶다면, 누가 그것을 팔았을까요? 글썄요, 질문을 한 사람은 유대였고, 유다는 제자들의 금고를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그것을 팔았을 수도 있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행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팔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기부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향수를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11 그는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모퉁잇돌이 되었습니다. 버린 수동태와 말하는

사람은, 제 청중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버린 사람들이고, 또한 인용문에서 건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또한 인용-인용 부호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유적인 내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 인용문에는 상호 텍스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인용문을 자신에 대해 사용하셨고, 이제 제자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당신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요 모퉁잇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일종의 수동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를 주요 모퉁잇돌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요 모퉁잇돌과 돌은 매우 비유적이며, 다시 말해서 구약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는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어. 그리고 성전은 기초석을 놓는 거야. 건물이 작동하는 방식은 그들이 완벽한 정사각형인 이 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완벽하게, 글썄요, 직사각형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죠. 하지만 그 위의 각도는 모든 면에서 정확히 직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먼저 내려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벽돌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먼저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올라가는 모든 벽마다, 그들은 그 기본 초석에 따라 모든 것이 정확히 완벽하게 똑바로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초석은 그 중심 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모서리는 모두 직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모서리가 완벽하게 직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구절, 최고 초석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동태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해야 할 일, 특히 동사적 아이디어와 소유격 구조와 관련해서 해야 할 일, 특히 이런 식으로 함께 나타날 때, 각주에 무언가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주에 추가하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 구절에 대한 교차 참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 복음서의 구절에 대한 교차 참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가 자신이 종교, 유대교의 핵심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문학적 정보를 사용하고, 각주를 사용하고, 어휘집을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각주를 아무도 읽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과잉 일반화라는 것 말고도. 만약 그렇다면, 왜 공부용 성경이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알고 싶어서 각주를 읽고, 나가서 주석을 살 수 없습니다. 아니면 나가서 주석을 사고 싶지 않고, 그저 읽으면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는 각주를 넣기에 완벽한 곳입니다. 여기는 교차 참조를 넣기에 완벽한 곳입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9절, 이것이 내가 파견되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온 이유입니다.

이것은 고넬리우스가 베드로를 부르는 것이고, 베드로는 가기로 동의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리우스와 고넬리우스와 함께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고, 고넬리우스는 그의 온 가족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을 베드로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앉아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가 파견되었을 때 여기서는 수동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나를 불렀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 왜 날 불렀는지 말해줘. 그러니까, 그 모든 게 함께 흐르도록 해야 해. 우리가, 날 불렀어, 날 불렀어라고 하면, 그게 흐를까?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서 아이디어는, 수동태일 때 수동태로 말해야 할까, 아니면 능동태로 말해야 할까? 좋아요.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저주를 받았고, 그는 넘어져 죽었는데,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벌레에게 먹혔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사망은 분명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추측은 그가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그의 몸이 벌레에게 먹혔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에게 그 질문을 했다면, 그가 먼저 벌레에게 먹혔는지 아니면 먼저 죽었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아마도 그렇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말이 안 됩니다. 그는 죽었고, 벌레가 그의 몸을 먹었습니다.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단지 제안일 뿐이며, 특히 다른 언어로 전달하려고 할 때 생각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달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 말로 말해 줄 수 있나요?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리고 그들이, 글썄요, 벌레들이 그를 먹었고, 벌레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식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불꽃이 결코 꺼지지 않고, 벌레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사람들이 영원한 저주의 불 속에서 타고 있고, 죽은 후에 벌레에게 먹힌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먼저 죽었다는 것을 텍스트 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 언덕에서 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강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소통하는 언어에서 정상적으로 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아요, 또 하나. 사도행전 16장, 디모데전서 16장 2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는 리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수동태 는 잘 말했다.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에 있는 형제들이 그를 잘 말했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22:1, 그들 때문에 나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받고 다메섹으로 떠났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벌을 받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였다.

묶인다는 수동태이고, 벌받는다는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리스어에서 직접 번역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어 동사 수동태, 묶이고 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을 읽어보면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역은 '죄수로서' 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은 '묶인 자를 위한 사슬에 묶인' 이라고 말합니다.

좋아, 그들은 죄수인가? 네. 죄수라는 단어가 그들이 묶여 있었다는 생각을 주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 미국에서라면, 그들은 매우 부유해서 수갑을 채울 필요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수갑을 채웠을 가능성이 큼니다.

금속이었나요? 사슬에 묶인 채로, 우리는 약간 도약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묶여 있었을 수도 있고, 손이 밧줄이나 가죽 끈으로 묶여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 묶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이것이 묶였다는 것이고, 그것은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동태나 뭐 그런 귀찮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복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문장의 정보에서 전체 문장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당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른 틈이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틈은 잘 전달되지 않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앞 구절을 읽어보면 그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들을 지칭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나는 받았다, 나는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주었다. 그래서, 받는다는 것은 형제들에게는 능동 동사이다.

그것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다마스쿠스로 시작하자. 좋다. 형제들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누구, 무엇, 어디, 언제, 왜, 어떻게라고 한 것을 기억하는가? 형제들은 누구인가? 어떤 버전에서는 유대인 형제들을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어떤 유대인 형제들? 그리고 기사를 읽어보면, 사실 바울이 자신의 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예루살렘의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당시 사울에게 다메섹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전할 편지를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전체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이것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그것을 단축된 방식으로 말하고 있으며, 정보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유대인 형제들을 아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형제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마스쿠스의 유대인 형제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든 다양한 정보를 풀어서 분류하고 매끄럽고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 즉 사제들로부터 저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편지를 받았고, 거기, 즉 다마스쿠스에서 시작하여 결속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전에 먼저 묶으세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 즉 예수를 따른 사람들을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다음 당국에서 처벌을 받아 처벌받게 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매끄럽고 명확하며 자연스럽고 정상적으로 들리는 방식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통 영어로 말하는 방식이며,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만들 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텍스트에 없는 것을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습니다. 암묵적인 것은 실제로 텍스트에 있습니다. 그것은 언급되지 않았을 뿐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보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가 살펴본 프로세스는 무엇이었을까요? 동사를 식별하고 참여자를 식별합니다. 우리는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 동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다시 말하고 참여자를 명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능동태를 사용할까요? 수동태이고 두 언어 모두 수동태가 있는데 왜 그냥 수동태로 두지 않을까요? 그것은 확실히 선택 사항입니다. 참여자를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가장 잘 통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대상 언어에 수동태가 있고, 그것이 사용되면 어떨까요? 글썄요, 우리가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좋은 글에서는 능동태가 선호되기 때문 입니다 . 심지어 우리 언어인 영어에서도요. 그래서 대학에서 학술논문을 쓰고 교수님이 그냥 이걸 똑바로 말하고 능동태로

말하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저는 능동태와 능동 동사도 우리가 말하는 방식인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동태로 많이 말하지 않지만, 글쓰기에서는 확실히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능동태는 더 생생하고 더 강하거나 더 강력하고 더 강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향이 지 딱딱하고 빠른 규칙이 아닙니다.

능동태는 대상 언어에서 더 정상적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 그렇게 한다면 다른 언어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텍스트가 더 이해하기 쉬울지 참가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사율이 다메섹으로 가는 것과 같은 우리가 방금 다룬 작은 문장조차도, 사실 저는 그 중 일부를 명확하게 하고 단어의 순서를 조정함으로써 더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절의 순서를 바꾸거나 문장의 후반에 있는 절 하나를 문장의 앞에 두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집에 갔다고 말할 수도 있고, 배가 고파서 집에 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물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은 의미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문법을 조정할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번역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선호도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번역자와 그 그룹의 다른 사람들이 "그래, 그게 정말 더 나은 것 같아"라고 말하는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번역해서 소리 내어 읽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소리 내어 읽습니다. 제가 컨설턴트일 때 좋아하는 일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번역을 확인하고, 특정 구절을 작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조정을 하고, 세 개나 네 개의 구절을 함께 합니다. 모든 조정을 마치면 단계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세 번째 구절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는 세 번째 구절의 내용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것이 함께 흘러야 합니다. 정보가 흘러야 하고, 모든 문법적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 이걸 소리 내어 읽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리 내어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중에게, 귀가 어땠는지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들렸나요? 달콤하게 들렸나요? 그리고 나서 독자에게 소리 내어 읽는 느낌이 어땠는지 물어볼 겁니다. 혀에서 흘러나오는 느낌이 어땠나요?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텍스트, 매끈한 텍스트, 일관성 있는 텍스트를 얻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생각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전체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핵심 요점입니다. 우리는 목표에 도달했을까요?

때로는 작가가 어떤 이유로든 그 사람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고자 했다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시적으로 밝히면, 우리는,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지만,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텍스트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둡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인 후 배에 올라탔고, 배 위에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글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누룩은 바리새인의 비유적 표현이 맞죠? 그러니까, 글썄요, 바리새인의 영향력을 뜻하죠. 좋아요, 우리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럼, 번역에서 그것을 명확히 합시다. 그러면 더 명확해질 테니까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을 조심하세요. 다음 구절에서 제자들은 그가 빵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비유적 표현을 제거했습니다. 우리는 누룩에 대한 생생한 이미지를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빵에 대한 그의 진술을 오해할 가능성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보관하는데, 왜냐하면 예수께서 신비롭게 말하고 싶어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누룩과 빵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것을 말하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느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우리가 빵을 남겼기 때문에 그가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함께 어울립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유와 다른 비유적 이미지를 그대로 둡니다. 그것이 그렇게 의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면에서, 글썄요, 이해할 수 없는 이미지가 있을 때마다 제거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가르침의 요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생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언어로 된 성경을 평생 동안 가지고 있으면 성경의 특정한 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의 속담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사람들이 이러한 다양한 표현을 배우고, 그것을 말하는 다른 방식을 배우는 데는 무언가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평균적인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더 규범적이고 더 일반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하는 문화권의 사람들은 이런 용어에 익숙해지고 그 문화권에서 어느 정도 규범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7에 있는 수동태 구조와 다른 것들에 대한 이전 강의 중 하나에서 우리가 읽은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수동태 구조라는 것입니다. 전체 구절의 맥락에서, 여러 문장이 함께 있는 맥락에서 수동태 구조를 어떻게 다룰까요? 그리고

어떻게 서로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전체를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분석한 후에 번역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워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언어적 행동, 언어적 개념, 종을 살펴보면,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섬깁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수동태입니다. 누가 부른 것일까요? 누가 바울을 부른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 예수 /신일 것입니다. 사도로서 사도는 동사 명사, 보내진 사람입니다.

바울을 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에 대해 읽어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고, 성령이 우리가 저곳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따로 떼어놓다(set a part) 는 실제로 거룩하게 하다, 독특하게 따로 떼어놓다라는 동사입니다.

누가 누구를 따로 세웠는가? 예수께서 바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말씀하셨고, 그것이 따로 세움의 이유이며,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 하나님에 대한 정보, 바울이 전파할 것이지만, 내가 해야 할 그 부분은 어떻게든 거기에 숨겨져 있고, 따로 세움과 부름과 보냄의 이유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나, 폴, 문화에 따라 가끔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는데, 누군가의 이름을 폴로 시작하는 편지를 쓰는 건 정말 이상하게 들리죠. 폴, 여러분이 아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좋아요, 가끔은 나를 추가해야 해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나요? 나, 폴,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사람.

나, 그가 부르고 보내신 자, 그가 따로 세우신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런 관계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요한 것이

아니고, 그는 나를 부르셨고, 그는 나를 보내셨고, 그는 나를 따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했다면, 아마 괜찮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예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약간의 여유가 있지만, 우리가 숙고하고 바울을 부른 사람이 누구인지, 바울을 특정한 일을 하도록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바울을 따로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바울을 따로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위해 따로 세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혹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내가 다른 곳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로 암시된 숨겨진 정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세요. 좋아요, 6절과 7절에 또 하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은 수동태와 소유격 구조입니다. 당신도 그리스도 예수가 부른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당신을 부르셨다고 말하는 대신, 그들을 지칭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로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the ones who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7절에서 여섯 가지 중 하나를 거친 후의 모습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편지의 수신인입니다. 바울, 왜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번역 컨설턴트나 편집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작업을 검토하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걸 그의 편지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마무리입니다. 저는 로마에 있는, 신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편지를

쓰니다. 신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편지를 쓰니다. 저는 로마에 있는
 , 신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편지를 쓰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들이
 어려운 구절이라는 것을 반복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빨리 읽으면 놓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 이
 어려운 언어나 문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 그리스어로 돌아가서, 글썄요, 그리스어는 이걸 알아내기 위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 번역에 각주, 섹션 제목, 학습
 안내서 또는 책 소개 등에서 그러한 보조 텍스트 공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휘집은 어떨까요? 그리고 여기에 넣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성경 외의 모든 추가 성경 참여 자료가 있어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른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파라텍스트 자료를 쓰고 번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전 메시지에서 이야기했던 다른 모든 추가적인 것들은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쓰고, 그런 다음 실제로
 번역되는 경전의 언어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 특히 이러한 어려운 개념, 어려운 명사,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과 함께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원하나요? 효과적인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조지 페이튼 박사와 그의 성경 번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3, 수동적 구성입니다.